

## 연해주출토의 동검·세문경류일괄유물 (沿海州出土의 銅劍・細文鏡類一括遺物)

金元龍

### 一

일찍이 소련연해주(蘇聯沿海州)슈코투와에서 다뉴동경(多鈕銅鏡)의 파편(破片)이 발견(發見)된 일이 있어 조거용장씨(鳥居龍藏氏)에 의(依)해 소개(紹介)되었는데<sup>1)</sup> 다시 1959년에 이 유적(遺蹟)에서 멀지 않은 이즈웨스트프에서 세문경(細文鏡), 세형동검(細形銅劍) 등 청동일괄유물(靑銅一括遺物)이 판석광묘(板石墳墓)라고 믿어지는 곳에서 발견(發見)되었다. 이 발견(發見)은 오클라드니코브교수 외 일인(教授外一人)에 의(依)해 「쏘연고고학(連考古學)」(소베트스카야 아르헤오로기야) 1960년 3호에 보고(報告)되었는데 이 보고(報告)에 의(依)해서 일본(日本)의 평정상지씨(平井尙志氏)가 그 대요(大要)를 고고학잡지(考古學雜誌)에 재소개(再紹介)하였다<sup>2)</sup>.

우리로서는 평정씨(平井氏)의 글 밖에 의존(依存)할 길이 없으며 평정씨(平井氏)의 소개문(紹介文)을 재인용(再引用)하는 수 밖에 없으나 유물(遺物)의 성격(性格)이 중요(重要)하고 우리나라 청동문화연구상(靑銅文化研究上) 희귀(稀貴)한 자료(資料)일 뿐 아니라 여기서 나온 일종(一種)의 곡옥(曲玉)이 최근(最近) 부여(夫餘)에서 역시(亦是) 동검류(銅劍類)와 함께 발견(發見)된 일례(一例)와 비슷한 점(點)이 있기에 여기에 다시 소개(紹介)하며 아울러 약간(若干)의 사견(私見)을 붙여 볼까 하는 바이다.

### 二

이즈웨스트프는 연해주(沿海州) 마이해강(江) 계곡(溪谷)의 우안(右岸)을 5~6천(畝) 올라간 지점(地點)에 있는 석회암구(石灰岩丘)이며 올라디보스토크 동북방(東北方) 약(約) 55천(畝) 되는 곳이라고 추정(推定)되고 있다. 이 지역(地域)에서 전시중(戰時中) 포로(捕虜)로서 2, 3개월(個月)을 지낸 바 있다는 평정씨(平井氏)에 의하면 여기는 구릉성지대(丘陵性地帶)이며 백화(白樺)가 무성(茂盛)하다고 한다. 이 이즈웨스트프구(丘)의

1) 鳥居龍藏 「極東シベリア發見の銅劍と銅鏡」 考古學研究 第3卷1號(1929年)

2) 平井尙志 「沿海州新出土の多鈕細文鏡とその一括遺物について」 考古學雜誌 49卷 3號(1960年 3月)

정부(頂部)는 편평(扁平)한 편이지만 마이해강(江)에 면(面)한 쪽은 고(高) 40~60m의 급사면(急斜面)으로 되어 있고 산정(山頂)에는 사암(砂岩), 화강암(花崗岩) 등으로 쌓은 산성지(山城址)(아마 고구려(高句麗)?)가 있다. 이번 청동유물(靑銅遺物)은 이 구릉(丘陵)의 동록(東麓)에서 도로공사(道路工事)로 채토중(採土中) 발견(發見)된 것이며 때는 1959年 3月이었다. 발견(發見)된 유물(遺物)은 다뉴세문경(多鈕細文鏡) 1, 세형동검(細形銅劍) 2, 동모(銅鏃) 1, 동려(銅鑊) 1, 침삭기(尖削器) 1, 석부(石斧) 1, 옥(玉) 1, 그리고 사람의 하악골(下顎骨)이 있으며 유적(遺蹟)은 완전소멸(完全消滅) 되었으나 원래 지하 1내지 1.5m 깊이에 조잡(粗雜)한 석판(石板)으로 짠 상형석광(箱形石壙)이었다고 하며 일변(一邊)의 길이는 70cm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유적(遺蹟)의 구조(構造)가 분명(分明)하지 못한 것은 이것이 인부(人夫)들에 의(依)해 공사중(工事中) 파괴(破壞)되어 출현(出現)하였기 때문이며 당초(當初)에는 토기편(土器片)과 또 한 개의 석부(石斧)가 있었다고 하나 이것들은 연해주박물관(沿海州博物館)에 보내지지 않은 채 없었고 고 말았다.

### 출토유물(出土遺物)

#### 1. 다뉴세문경(多鈕細文鏡)(圖 1)

직경(直徑) 12.5cm며 경면(鏡面)은 약간(若干) 요면(凹面)이고 잘 마연(磨研)된 회백색(灰白色)이었다. 경배(鏡背)를 보면 경연(鏡緣)은 삼각연(三角緣)이고 외구(外區)에는 큼직한 사선거치문대(斜線鋸齒文帶)가 둘러지고 다시 좁은 거치문양대(鋸齒文樣帶)를 사이에 두고 내구(內區)에 다시 외구(外區)와 같은 사선거치문대(斜線鋸齒文帶)가 있다. 중심부(中心部)는 실측도(實測圖)에 자세(仔細)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좁은 선문대(線文帶)로 둘러진 조선문(粗線文)인 것 같다. 뉴(鈕)는 이 중심부(中心部)보다 약간(若干) 상측(上側)에 서로 약(約) 2cm의 간격(間隔)을 두고 두 개가 배치(配置)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뉴(鈕)사이에는 두줄기외줄기가 있는데 이것은 뉴(鈕)에 구멍을 뚫기 위해 주범(鑄范)에 그렇게 조작(造作)한 것으로 믿어진다.



圖 1. 세문경(細文鏡)

이 세문경(細文鏡)은 우리나라의 다뉴세문경중(多鈕細文鏡中) 조문식(粗文式)이라고 불리우는 고식군(古式群)<sup>3)</sup>과 동형식(同形式)임이 분명(分明)하며 전평남성천(傳平南成川) 출토(出土)의 일례(一例)(조선고문화총감(朝鮮古文化綜鑑) 제1책(第一冊) 圖版 43 第 217號는 크기(직경 11.4cm)에서나 문양(文樣)에서나 가장 이 연해주경(沿海州鏡)에 가깝다고 하겠다. 한편 최근(最近) 전북익산읍(全北益山邑)에서 세형동검(細形銅劍)과 함께 발견(發見)된 세문경(細文鏡)도 정조(精粗)의 차이(差異)는 있으나 문양(文樣)의 형식(形式)이나 구성(構成)이 이 성천경(成川鏡)과 같다(圖2).

3) 拙稿 「益山五金山出土多鈕細文鏡과 細形銅劍」 考古美術 8卷3號(1967年3月)



圖 2. 익산출토세문경(益山出土細文鏡)

다만 이 두 경(鏡)에서 외구(外區)가 거치문(鋸齒文)이 아니고 사선문(斜線文)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식경(漢式鏡)으로부터의 영향(影響)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조문식다뉴경(粗文式多鈕鏡)으로서 기왕(既往)에 발견(發見)된 예(例)로는 전기(前記)한 성천(成川), 익산이외(益山以外)에 전충남출토경(傳忠南出土鏡), 전평양출토경(傳平壤出土鏡)<sup>4)</sup> 소록도출토경(小鹿島出土鏡)<sup>5)</sup> 부여군초촌면연화리출토경(扶餘郡草村面蓮花里出土鏡)<sup>6)</sup> 등이 있는데 이번에 동식(同式) 경(鏡)이 멀리 연해주(沿海州)에서 발견(發見)된 것이다.

## 2. 세형동검(細形銅劍)(圖 3)

길이가 각(各) 31.2cm, 31.4cm로서 거의 동장(同長)의 완전(完全)한 동검(銅劍)이며 예리(銳利)하고 광택(光澤) 있는 회백색(灰白色)이라고 한다. 둘이 모두 만주식(滿洲式)이라고 불리는 검신하부(檢身下部)가 넓어진 식이 아니고 보통(普通)보는 전형적(典型的) 세형동검(細形銅劍)이다. 그리고 검봉(劍鋒)이 길지 않고 또 검신척능(劍身脊稜)인 검축부(劍軸部)가 만입부이하(彎入部以下)에서는 능선(稜線)이 없고 그대로 둥글게 되어 있어 이 형식검(形式劍)에서는 고식(古式)의 형식(形式)<sup>7)</sup>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기(前期) 부여연화리출토(扶餘蓮花里出土)의 동검(銅劍) 사(四)개중(中) 길이 31cm의 일례(一例)는 크기, 형태(形態)가 모두 이 연해주예(沿海州例)와 흡사(酷似)하다.

4) 二例 모두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冊 圖版 43 參照. 그리고 따로 粗文式 鑄範 二개가 傳平南孟山出土로 알려져 있다(同書 圖版 44)

5)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冊 圖版 32

拙稿 「韓國江原道襄陽郡出土細形銅劍 細文鏡鑄について」 史林 50卷2號(1967年3月)

6) 金載元 「夫餘, 慶州, 燕岐 出土 銅製遺物」 震檀學報 25, 6, 7合號(1964年 12月)

7) 尹武炳 「韓國青銅短劍의 型式分類」 震檀學報 29, 30 合號(1966年12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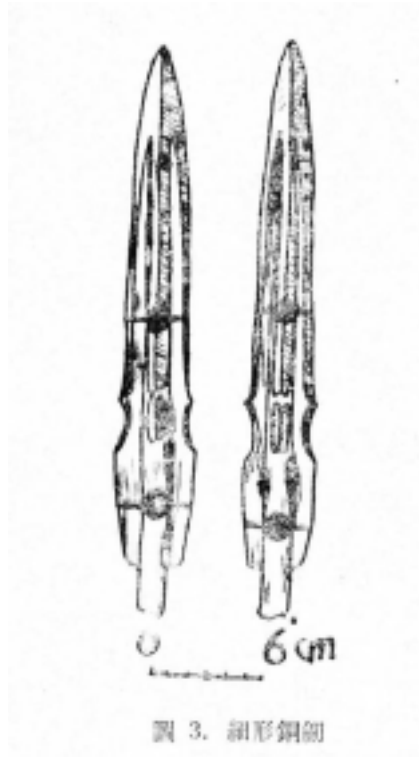


圖 3. 세형동검(細形銅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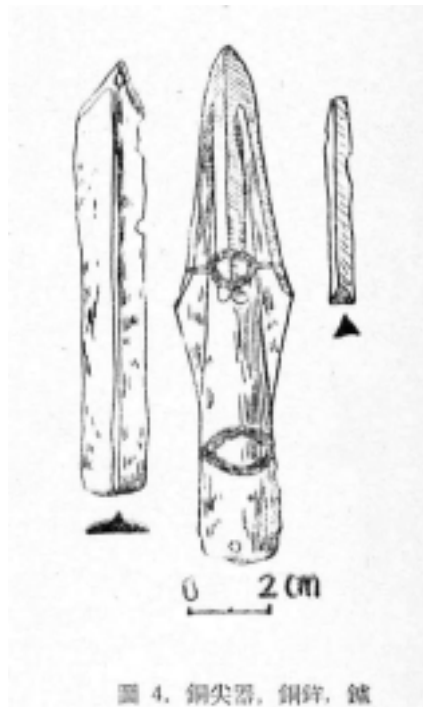


圖 4. 동침기(銅尖器), 동모(銅銚), 로(鑪)

### 3. 청동모(靑銅鉞)(圖 4 중앙(中央))

길이 13.6cm, 병부(柄部)는 중공(中空)으로 되어 자루를 꽂게 되었고 고착(固着)하기 위해 일공(一孔)이 뚫려 있다. 모축(鉞軸)은 등글지만 인부(刃部)와 동시(同時)에 끌로 끌려 그 부분(部分)은 중심선(中心線)에 능선(稜線)이 생기고 있다.

### 4. 청동로(靑銅鑪)(圖 4 우(右))

단면삼각형(斷面三角形) 장(長) 5.4cm, 일면(一面) 폭(幅) 0.5cm이다. 이것은 상기(上記)한 동검(銅劍)이나 동모(銅鉞)의 인부(刃部)를 날카롭게 만들 때 쓰던 줄이 분명(分明)한데 이러한 청동공작용(靑銅工作用) 줄이 발견(發見)된 것은 처음이며 흥미(興味) 있다. 다만 평정씨(平井氏)글에는 분명(分明)히 청동제(靑銅製)로 되어 있으나 역시(亦是)이 원보고문(原報告文)을 인용(引用)한 문화유산(文化遺産) 62年 3號(p. 35)에는 석제(石製)로 되어 있다. 청동(靑銅)을 마연(磨研)하는데 쓰는 줄이 같은 청동(靑銅)이라는 것은 수궁(首肯)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역시(亦是) 경질(硬質)의 석제(石製) 끝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다만 원보고문(原報告文)을 읽어본 일이 없어 뭐라고 말하기 힘들나 이것은 역시(亦是) 석제(石製)가 옳으며 평정씨(平井氏)가 혹시(或是) 오해(誤解)하였거나 오독(誤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이다.

### 5. 청동제침삭기(圖 4 좌(左))

전장(全長) 11.6cm, 폭(幅) 1.75cm의 동판(銅板)이며 일면(一面)은 편평(扁平), 타면(他面)은 렌즈처럼 되었고 가운데 돌출능(突出稜)이 일선(一線) 있다. 그리고 일단(一端)은 직저(直底)이지만 타단(他端)은 삼각침두(三角尖頭)이며 그것이 일면마연(一面磨研)의 단인(單刃)으로 되어 있다. 이 도구(道具)는 현재(現在)의 삼각도(三角刀)나 끌처럼 쓰이던 것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과 동형식(同形式)의 동침기(銅尖器)가 대동군대보면반천리(大同郡大寶面反川里)에서 일례(一例)가 역시(亦是) 세문경(細文鏡)과 함께<sup>8)</sup> 또 김해패총(金海貝塚)에서 7개분(個分)이 동검(銅劍)과 함께 옹관(甕棺)에서<sup>9)</sup>, 그리고 鐵製가 一例 평북위원(平北渭原)에서 철제농구(鐵製農具) 일괄(一括)과 함께 발견(發見)되었다<sup>10)</sup>.

8) 朝鮮古文化綜鑑 第1冊 圖版 19 第98號

9)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冊 圖版27 第128號

10)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冊 圖版 2 第6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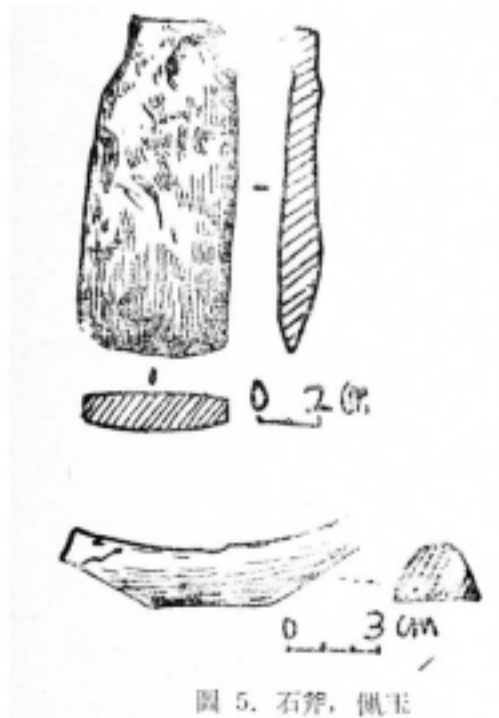


圖 5. 석부(石斧), 패옥(佩玉)

#### 6. 석부(石斧)(圖 5 상(上))

전장(全長) 10.7cm □폭(□幅) 7.5cm, 석질(石質)은 불명(不明). 편평신(扁平身)에 양인(兩刃)이 달린 형식(形式)이며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석묘(支石墓)나 무문토기유적(無文土器遺蹟)에서 나오는 형식(形式)이다. 소록도(小鹿島)에서는 세문경(細文鏡), 석족(石鏃)과 함께 이러한 식(式)의 편평석부(扁平石斧)가 나오고 있다<sup>11)</sup>.

#### 7. 옥(玉)(圖 5 하(下))

장(長) 약(約) 9cm의 궁형품(弓形品)이며 벽옥(碧玉)같은 녹색석(綠色石)으로서 단면(斷面)은 반원형(半圓形)이고 장변(長邊)인 저변(底邊) 중앙부(中央部)에는 장축(長軸)과 직각(直角)으로 일조(一條)의 홈이 파져 있어 패용(佩用)을 위한 마련이라고 생각 된다. 이것과는 형태(形態)가 좀 다르나 단면(斷面)이 반원형(半圓形)이고 형(形)으로 된 천하석제곡옥(天河石製曲玉)이 전기(前記) 부여연화리(夫餘蓮花里)의 소축석석광묘(小築石石墳墓)에서 세문경(細文鏡), 동검(銅劍)과 함께 발견(發見)되어 있으며<sup>12)</sup>, 서로 상통(相通)하는 점(點)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1)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冊 圖版 32

12) 金載元 前揭論文 p. 291 第4圖

### 三

이상(以上) 이즈웨스트프출토(出土) 청동일괄유물(靑銅一括遺物)을 대략(大略) 재소개(再紹介)하고 아울러 一, 二 우리나라 출토품(出土品)과 비교(比較)하여 보았다. 여기 일괄유물(一括遺物)을 넌바와 같은 판석광묘(板石墳墓)(상형석관(箱形石棺))는 우리나라 각지(各地)에서 발견(發見)되고 있으며 처음에는 단독(單獨)으로, 나중에는 남식지석묘(南式支石墓)와 결합(結合)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형석관(箱形石棺)이 시베리아의 소위(所謂) Cist 묘(墓)에서 출발(出發)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靑銅器)—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의 묘제(墓制)임은 이미 여러 선학(先學)이 지적(指摘)한 바와 같다<sup>13)</sup>.

따라서 연해주발견(沿海州發見)의 이 석광묘(石墳墓)나 출토유물(出土遺物)은 모두 우리나라 해당(該當) 유적유물(遺蹟遺物)과 공통(共通)되는 바이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동검(銅劍), 세문경문화(細文鏡文化)가 두만강(豆滿江)을 넘어 연해주(沿海州)까지 분포(分布)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래(近來) 함경도(咸鏡道), 강원도(江原道) 지역(地域) 여러곳에서 세형동검관계(細形銅劍關係) 유적유물(遺蹟遺物)이 발견(發見)되고 있으며<sup>14)</sup>,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 그 자체(自體)뿐 아니라 그 지역적(地域的)인 분포상(分布相)이나 성격(性格)에 관해서 새로운 고찰(考察)을 필요(必要)케 하고 있다. 그런 의미(意味)에서 이 연해주유물(沿海州遺物)은 중요(重要)하다고 하겠으며 원보고(原報告)를 볼 수 없기는 하나 고고학잡지(考古學雜誌) 소재(所載)의 소개문(紹介文)에 의해 여기에 그 대략(大略)을 설명(說明)하여 두는 바이다.

13) 이러한 石墳墓에 관한 仔細한 記錄으로서는 三上次男 著 『滿鮮原始墳墓의 研究』(東京 1960年) 參照

14) 註(3) 所引 史林 所載 拙稿 參照